

# ‘농업인 공익수당’ 전국 확산 제동 걸렸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전북도 요청에 정부 ‘수용곤란’  
전남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전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들과 연계, ‘농민 공익수당’ 제도의 취지를 알리려 전국화하는 한편,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는 지난 17일 제46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농업인 수당’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전북도 요청과 관련,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농업인 수당’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농·어업 비중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지원하기 위한 ‘전남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전국화하는 데 동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가 농·어업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알려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지자체마다 인구구조 및 재정상황 등 여건이 달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향후 정부 지원을 통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전남도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대신,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공익직불제를 전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러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입장은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들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과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월 21일까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사·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사·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승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호르무즈 파병은 국익을 위한 것”

정부, 美·이란 사이 절충안... 한국 국민·선박 보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기여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향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난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

한 것은 외교적 상황을 두루 따져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면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란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한국이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 군사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6명... “사람간 전염” 방역 비상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  
환자 치료한 의료진도 감염  
광주시 비상체계 ‘주의’ 단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6명으로 급속히 늘면서 제2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한 폐렴’에서 사람 간 전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의료진도 대거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우한 폐렴은 진원지인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넘어 수도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상하이(上海)까지 번졌으며 동북 지역의 다롄(大連)과 광시(廣西)장족자치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와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21일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하루 동안 ‘우한 폐렴’ 환자 60명이 나왔으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저녁 89세 남성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21일 광주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때 따라 우한시의 ‘우한 폐렴’ 감염자는 총 258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은 완치돼 퇴원했으며 6명은 숨졌다. 나머지 227명은 격리돼 병원 치료 중이며 이들 중 51명이 중대, 12명은 위중하다. 우한시 보건 당국은 ‘우한 폐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988명을 추적해 739명은 관찰 해제 조치했으나 249명은 여전히 의학적 관찰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의 고위급 전문가팀장인 중국공정원 원사인 저펑과 학자 쑤닝(鍾南)은 지난 20일 밤 중국중앙방송(CC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금까지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만 밝혀왔다. 쑤닝은 원사는 광둥성의 환자 가운데 2명은 우한에 간 적이 없으며 가족이 우한에 갔다 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 14명이 환자 1명으로부터 감염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의료진의 감염 사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의료진 가운데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쑤닝은 사람 간 전염과 의료진 감염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전염성이 높지 않더라도 “사람 간 전염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도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데 맞춰 감시와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5개 팀, 37명 규모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또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등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2곳, 12병상을 재정부담하도록 했다. 시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 기관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수신자 조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김형호 기자 khh@

# 안나푸르나 기상악화 속 수색 재개 추진

헬기 3대·인원 50명 투입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기상악화의 어려움 속에 21일 다시 추진 중이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수색작업은 최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과 20일 연속으로 오후 들어 날씨가 나빠지고 새로운 눈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색작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21일에도 민간인 50여명의 수색 인원이 현장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군 헬기 2대와 민간 헬기 2대로 항공 수색에 나선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도 KT의 드론 장비를 동원, 수색 지원에 나섰다. 엄 대장은 전날 헬기편을 타고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해발 3700m)에 있는 산악구조센터

에 가서 드론 등 수색 장비를 포카리로 가져왔다. 엄 대장은 전날 수색 장비를 점검했으며 이날 드론을 띄워 사고 현장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오전 8시에 현장 부근으로 이동했다. 실종자 가족 3명과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7명은 이날 포카리에 추가로 도착한다. 포카리에는 지난 19일 실종자 가족 6명이 도착한 상태다. 실종자와 함께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 해외교육봉사단 3팀 교사들은 귀국길에 오른다. 지난 13일 출국한 3팀 11명은 건강 문제로 2명을 제외한 9명이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다 17일 오전 테우랄리산 인근에서 하산 도중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됐다. 남은 7명 가운데 현지에서 지원단에 합류한 1명을 제외한 6명이 21일 카트만두로 이동해 2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편, 21일로 실종 5일째 되면서 실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산악전문가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아파트 행암동 제일풍경채 16층 94㎡ 조방·일조권 최고 3억3700
- 카페 등 적합 하순 도곡면 호산리 땅 940㎡ 집 92㎡ 4억6천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6층 정남향 리모델링 원로 즉시입주 1억1800
- 북구 임동 소방도점 준주거 298㎡ 원룸 등 적합 4억6500
- 서구 양동 광주천변 부근 상업지 347㎡ 다세대·원룸 등 적합 5억5600
- 담양 월산동 월계리 대지 등 2268㎡ 전원생활 적합 교환 가능 1억5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산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을 1억3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조용한 생활 적합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담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기 화실·작가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 가 건 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교개방 403㎡ 가계 197㎡ 카페숍·편의점 적합 1억30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총창로4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 급 물 건

- 목포시 대암동 1중주거지 4121㎡ 투자·다세대 등 적합 7억2천
- 무안군 삼향읍(전남도청 건너편) 신세계 프라자 1층 67㎡ 자영업 적합 4억4천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안면) 11050㎡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별장 대로교환 가능 은행 3억 전세 있고 매도는 6~7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매트·식당·다구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웅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임**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품림죽림길 86)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 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빙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빙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